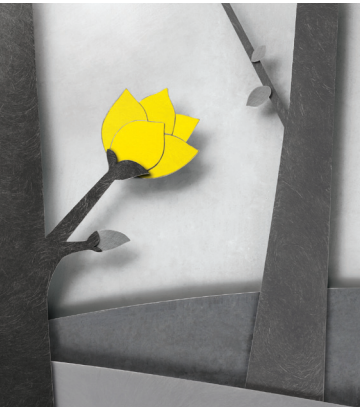


세 오 가 조

세 상 을 아 름 답 게 하 는 사 람 들

2015 MAR + APR VOL.356





세아의 봄날을 꽃피우는
불굴의 의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시인 도종환은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모두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난 봄의 새싹과 수줍게 피어난 꽃망울들은 마치 “봄은 열심히 땅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햇볕을 저장하며 겨울을 보낸 작은 생물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이겨내고 눈부시게 피어나는 봄의 생명들은 위기에 굴하지 않고 더 좋은 봄날을 만들어가는 세아인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발행일 2015년 4월 20일 **발행인** 서영범 **발행처** 세아홀딩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홍보파트 02-6970-0093
기획·디자인 (주)더운호 02-733-0790 **취재기자** 홍주희
표지 이근세 작가 **인쇄** 드림인쇄 02-464-6161
사진 Studio A one 02-553-4430

*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을 키우는 SeAH



04 Theme Sketch

언 땅을 뚫고 피어나는 새싹의 의지

06 Theme Interview

불굴의 의지, 가장 행복할 때 나오는 마법의 힘
<국립생태원 최재천 원장>

10 Theme Column

두드릴수록 더 강해지는 힘, 강철의지

14 Theme Research

위기의 순간, 당신의 선택은?



세상을 움직이는 SeAH



16 세아는 지금 1

함께 호흡하며 더 크게 나아갈 것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의 새로운 가족이 되다>

20 세아는 지금 2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버킷
<제1회 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

22 세아는 지금 3

차세대 리더들의 의지와 도약
<제6기 챌린지 리더 과정 수료식>

24 백 투 더 세아

역경을 딛고 전회위로
<위기에서 빛난 세아의 의지>

28 글로벌 세아

세아 FS의 중국 핵심 거점으로
<Qingdao SeAH Precision Metal>

32 현장견문록

두 주먹 불끈, 2015 또 하나의 명품을 창조한다
<세아 ESAB 제품개발팀>

36 부서탐방기

강철처럼 굳은 의지로 시장의 판을 뒤집다
<세아제강 실수요팀>

마음이 통하는 SeAH



40 가화만사성

100점 아빠의 따스한 추억 만들기
가족은 나의 ‘봄날’

44 Culture Review

비관의 현실마저 의지로 낙관하다
<집념과 끈기를 다룬 영화 이야기>

46 오페라 이야기

웃음으로 승화한 인생의 통찰
베르디의 <팔스타프>

47 브랜드 이야기

신뢰와 열정의 상징
<CI에 깃든 세아의 기상과 신념>

48 SeAH News

49 People News

50 Reader's Page



언 땅을 뚫고 피어나는 새싹의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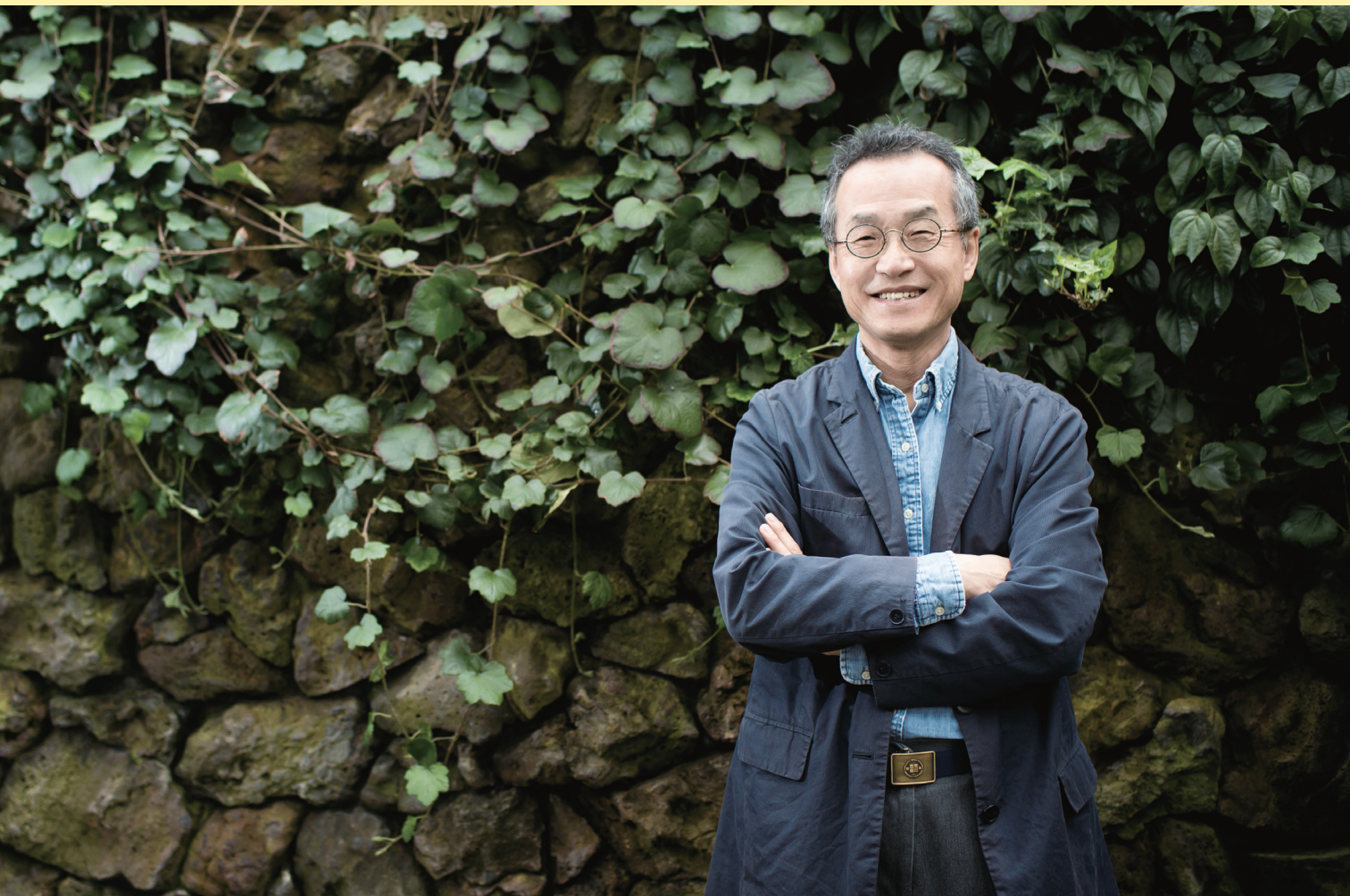


봄 햇살이 데운 자리마다
봄바람이 어루만진 터마다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향기로운 꽃, 아름드리나무의 꿈을 간직한 채
엄동설한을 오롯이 이겨낸 작은 씨앗 하나
겨우내 딱딱하게 굳어 있던 땅을 비집고
활짝 기지개를 켜며 세상으로 나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땅 속에도
심 없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키워내
기어이 푸른 봄으로 피어나는 새싹의 의지
이제 새싹은 화사한 꽃잎이 될 준비를 합니다.
무성한 잎사귀, 향긋한 열매를 맺을 채비를 합니다.
시리도록 차가웠던 겨울을 뚫고 피어난 연둣빛 새싹은
오늘 봄 앞에서 한없이 두근거립니다.



국립생태원 최재천 원장

불굴의 의지, 가장 행복할 때 나오는 마법의 힘



Profile

서울대학교 동물학과 졸업 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생태학 석사과정을 거쳐 하버드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에는 미시간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2007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예코과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9년 미국곤충학회 젊은과학자상과 2000년 제1회 대한민국 과학문화상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기후변화센터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한국생태학회 회장,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국립생태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며 <개미제국의 발견>,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알이 닭을 낳는다>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한 해 백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인 동시에 세계적인 양대 환경기구인 UN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 이런 명성 때문인지 100년쯤 된 기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오픈한 지 1년 3개월 된 국립생태원 이야기다. 그리고 이곳에 세계적인 권위의 생태학자 최재천 박사가 있다. 그는 평생 ‘저지르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 수많은 저지름 속에서 겨우 몇 가지가 성공해 지금의 최재천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불굴의 의지는 스스로 쥐어짤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나온다고 강조한다.

글 이슬비

생태원이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식물원, 동물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립생태원의 원장이 되면서 강조했던 것이 식물 전시, 동물 전시가 아니라 생태 전시여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생태(生態)라는 건 말 그대로 ‘생명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를 테면, 치타가 영양을 잡아먹고 남은 고기를 하이에나가 뜯어먹고 나머지는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전시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생태’ 전시입니다. 단순히 동물을 전시하고 식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령게티 국립공원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립생태원에서는 4월부터 ‘개미세계 탐험전’을 시작합니다. 개미 사회는 생태의 축소판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형식의 전시를 끊임없이 개발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방문객들도 생태원의 전시가 동물원, 식물원의 전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태과학자로서도 많은 성취를 이루셨는데 가장 큰 자부심을 하나 꼽자면 무엇일까요?

생태학은 아프리카의 초원이나 밀림에서 벌어지는 자연의 섭리를 연구하는 ‘아주 먼’ 학문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종합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 학문이지요. 그런데 94년 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당시만 해도 교수가 무슨 연예인인 줄 알고 자꾸 대중 앞에 나서려고 하냐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당시 지도교수님이 늘 대중을 위한 글을 쓰고, 대중강연도 하고, 뉴욕타임즈에 기고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과학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욕을 하거나 말거나 꾸준히 대중들과 소통하는 작업을 해왔어요. 이제는 대중과 소통하는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생태학자로서 중남미 열대지역을 누비며 연구했던 일련의 과정들 못지않게 연구 결과를 가지고 대중들과 소통하며 대중과 학문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 늘 자랑스러워요.



연구 과정에서 동물이나 곤충이 인간보다 낫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나요?

매 순간 느끼는 일이죠. 사실 인간과 다른 동물을 맞비교를 하면서 인간이 더 못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잘난 동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공감의 능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탄해하고 있잖아요. 고래는 동료가 다치면 여럿이 힘을 합해 아픈 고래를 떠받치고 다녀요. 허파로 숨을 쉬는 동물이라 가끔 바다 위로 올라가 숨을 쉬어야 하는데 다치면 수면 위로 올라갈 힘이 없어서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고래는 본능적으로 동료가 부상을 당하면 떠받치고 다니면서 가끔 숨을 쉴 수 있게 수면 위로 올려줍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가끔 미담이 있긴 하지만 ‘늘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도와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고래들은 남에게 미루지 않고 한 마리가 다치면 다 함께 떠받치고 다니는 거죠. 고래가 허파로 숨을 쉬어야 하는 핸디캡이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건 어쩌면 그들의 자발적인 희생정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성품이 고래 사회에선 아주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건 정말 배워야 할 점입니다.

10여 년간 극한의 자연환경에서 수행한 생태연구는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지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한국 대학 시절, 워낙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았는데 말도 안 되게 운이 좋아서 턱걸이로 하버드대에 합격을 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고 하버드대에 갔더니 ‘아직 서울대학교 성적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성적표가 도착했다면 아마 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 똑똑한 하버드생들 사이에서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말하는데 솔직히 저는 유학생활이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졸리는 내 생체리듬이 맑게 느껴질 정도로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자연에서 몇 십 년을 지내다 보니 억지로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연스럽게 벌어져야 해요. 일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즐겁고 내 삶이 만족스러울 때 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험벗고 못살던 시절에는 허리를 띠를 졸라매고 젓 먹던 힘까지 짜내는 것이 불굴의 의지였다면, 요즘 사람들에게 불굴의 의지란 행복할 때 나오는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 남이 못 말할 정도로 밀어붙이게 되잖아요.

행복한 일터라는 건 어떤 곳일까요?

작년이 한국에서 연구실을 운영한 지 딱 20년이 되는 해라 그동안 연구실을 거쳐 간 제자들과 한자리에 모인 적이 있어요. 사실 내 연구실에서 노벨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연구 논문이 월등하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많은 제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서 재미있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차두리 선수의 은퇴에 대해 ‘그는 최고는 아니었지만 유일했다.’고 쓴 기사를 읽었는데 그 말이 참 와 닿더라고요. 비록 아버지 차범근 같은 최고의 선수는 못되었지만 차두리 그 자체로 없어서는 안 될 선수였잖아요. 나의 연구실 출신 제자들도 차두리 선수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록 우리가 최고는 아니지만 자기들의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있거든요. 연구실에서 고생하며 보냈던 지난 시간이 돌이켜보니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을 때 그 연구실을 만든 사람으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국립생태원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사실 행복한 일터가 되면 뒤에서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닦달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닦달한 것보다 모자랄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어떤 조직이든 열 번 시도해서 열 번 다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덟 번쯤 해매다가 두어 번 기가 막히게 좋은 결과가 나와 조직을 살리는 법입니다. 여덟 번의 실패가 기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두 번의 큰 성공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립생태원 원장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워낙 일을 많이 벌이다 보니 ‘다음 원장이 할 일도 남겨놓아라.’는 뼈 있는 농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을 많이 저질러야 그 중에서 성공하는 일이 몇 가지 나오는 거잖아요. ‘시도하지 않은 숲의 성공률은 제로다.’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실패가 두려워 시도를 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한 것과 같아요. 인디언의 기우제는 성공률 100%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남은 임기 동안 지치지 않고 계속 일을 저질러 볼 생각입니다.



불굴의 의지란
행복할 때 나오는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
남이 못 말할 정도로
밀어붙이게 되잖아요.

두드릴수록 더 강해지는 힘 강철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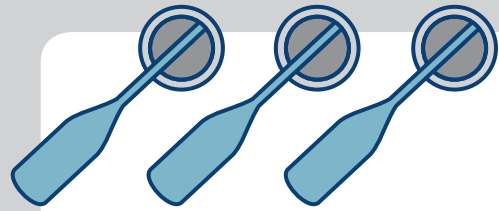


뜨거운 불길과 무수한 담금질을 통해 더욱 단단한 철이 태어나듯, 의지는 위기
와 시련을 겪을 때 더욱 견고해지며 그 진가를 발휘한다. 집념과 끈기를 갖고 포
기하지 않는 이에게 시련은 오히려 열정을 승화시키고 숨겨진 능력과 장점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역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한 위기는 두렵지 않다.

인생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외나무다리

인생은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삶의 연속이라고 했다. 인생의 ‘생’(生)은 소(牛)가 외나무
다리(一)를 건너는 형상(生 = 牛 + 一)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니 일리가 있기도 하다. 이
말은 곧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극복
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시련과 불운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우리
의 정신력과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시련, 위험, 고통이 불 보듯 뻔히 예상되
는 상황이 닥칠 때, 의지가 약한 사람은 외나무다리 건너의 모습만 동경할 뿐 건너기를
주저하고 망설인다. 다리 너머에서 기다리는 기회를 거머쥐는 이는 당연히 용기 있게 시
련을 극복해내는 사람이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를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낙심은 금물이다. 마음속
깊은 곳의 잠재능력을 믿고 의지를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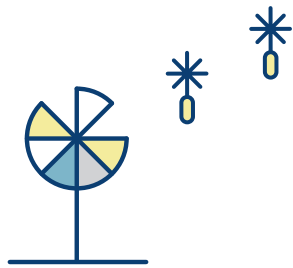


성공도 실패도 마음 먹기 나름

가짜 약을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 약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다는 것을 두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 또, 피그말리온 효과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바람이라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자신감과 의지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한다. 이들이 하는 일의 성패는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 상황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이다. 하지만,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하다면, 앞날에 성공의 길이 넓게 뿔려 있다는 믿음을 굳게 간직해야 한다. 어떤 고초가 닥쳐도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성공의 주인은 따로 있을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 믿으면 그렇게 된다. 영화배우 짐 캐리는 할리우드에서 성공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LA로 왔다. 무일푼이었던 그를 반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던 때, 그는 자신의 앞으로 천만 불짜리 수표를 쓰고, 지불 일 칸에는 5년 뒤의 날짜를 적어 넣었다. 그리고 매일 밤 “모두 나와 일하길 원하고 있다.”라고 주문을 걸 듯 말하곤 했다. 앞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오디션 기회를 찾아 다녔고 3~4년 후, 그가 출연한 영화 <에이스 벤추라>의 성공적인 흥행에 힘입어, 짐 캐리는 자기 앞으로 쓴 수표를 현금화할 수 있었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은 의지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 시작은 미약할지 몰라도 꺾이지 않는 의지는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된다.

집중하고 몰두하는 집념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이 앞서 잠 못 이루는 사람,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리는 사람, 이 눈치 저 눈치만 보며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 잘하던 일 관두고 늘 새로운 일 찾아다니는 사람 등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몰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 처음 일에 달려들 때는 맹렬한 기세를 보이지만, 이내 집중력을 잃고 흐지부지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 주어져도 잘 해내지 못한다. 그러나 온갖 유혹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목표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뚫어져라 응시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두각을 나타내며 무엇을 하든 신망을 얻는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성공할까 못할까를 걱정하느라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다. 오로지 목표를 향해 힘차게 밀고 나가는 방법 혹은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만을 고민할 뿐이다. 목표에 이르는 길에 산이 놓여 있든, 강이 놓여 있든, 또는 높이 있다 해도 상관없이 묵묵히 돌진한다.



끝까지 버티는 끈기

미국의 정치인 찰스 섬너(Charles Sumner)는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 첫째는 근성이요, 둘째도 근성이요, 셋째도 근성이다.”라고 말하며 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좋은 기회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없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단호하고 굳은 결심과 체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시작이 아무리 좋았다 해도 근성이 없으면 끝이 안 좋아지는 법이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서 빠짐없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바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자세이다. 아무리 심한 반대에도 부딪히고 극심한 좌절감이 엄습하더라도, 끈질긴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장애물 앞에서 멈춰서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힘들고 괴로워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행운, 기회, 재능, 천재성, 명석한 두뇌, 반듯한 예의를 갖춰야 성공을 거머쥔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귀 따갑게 듣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겸비했다고 확고부동한 목표와 목적이 뒤따르지 않는 한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한다. 시련과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 재능만 믿지 않고 끈기 있게 목표를 추구한 사람만이 달콤한 성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끈기를 당해낼 것은 세상에 없다. 재능도 끈기만은 못하다.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숭하다. 천재성도 끈기만은 못하다. 인정받지 못한 천재도 널렸다. 교육도 끈기만은 못하다. 세상에는 교육 받은 낙오자가 즐비하다. 끈기와 결의만 있으면 못해낼 것이 없다.”

제30대 미국 대통령 캘빈 쿨리지

꾸준한 단련으로 길러지는 저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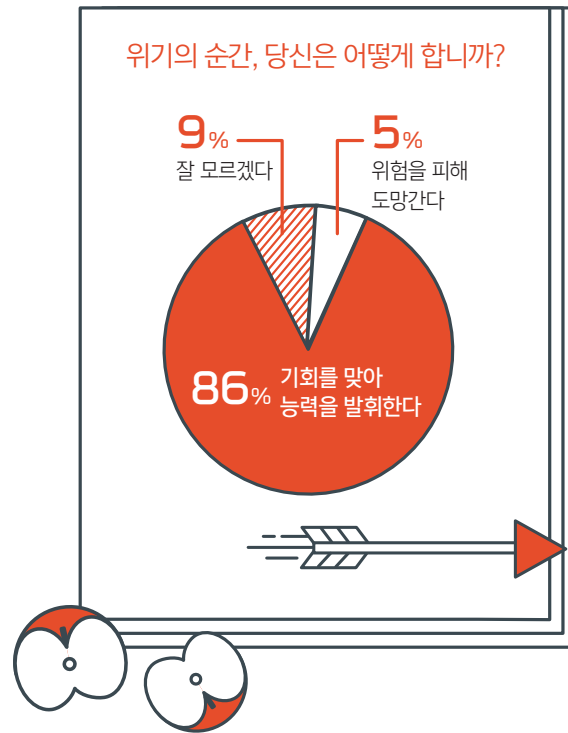
마라토너가 연습을 게을리한다면 기록 경신은 고사하고 완주조차 어렵게 된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의지를 단련해야 한다. 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워놓고 정신 집중을 통한 의지력 강화 훈련을 꾸준히 한다면 아무리 막연하고 복잡하며 보기 드문 문제에 부딪힌다 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 달리기를 배우려면 직접 달려봐야 하고, 수영을 배우려면 직접 물속에서 헤엄쳐봐야 하듯, 의지력 단련의 지름길은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작은 일에서부터 현명하고 끈기 있게 의지력을 발휘하고 다듬어가야 더 강하고 효과적인 의지력을 쌓을 수 있다. 아무리 힘든 고비라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의지력을 개발하고 키우다 보면 저절로 시련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 험준하고 높은 산도 거뜰히 넘을 수 있는 저력이 생긴다.



위기의 순간, 당신의 선택은?

조사기간 : 2015년 3월 18일 ~ 4월 1일(15일간)
응답자수 : 총 117명

성공도 실패도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시련과 역경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어차피 안될 거야’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며
강한 신념과 의지로 장애물을 돌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아인들은 어떨까요? 위기를 마주했을 때
기권이 아닌 기회로 여기는 세아인은 얼마나 되는지,
또 무엇이 세아인들의 의지를 북돋우는지 물었습니다.



Q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의지 요소는 무엇인가요?

29%

1위 나의 꿈과 목표가 담긴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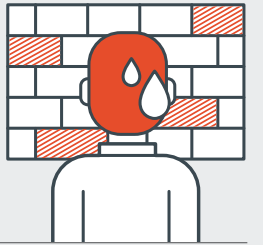


- | | | |
|----|-----|---------------------|
| 2위 | 27% |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
| 3위 | 23% | 편안함을 거부하는 '도전정신' |
| 4위 | 19% |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집요함' |
| 5위 | 2% | 기타 |

Q 의지를 꺾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24.3%

1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 | | | |
|----|-------|--------------------------------|
| 2위 | 22.5% |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하는 성과와 보상에 대한 불만 |
| 3위 | 21.6% | '내일부터 하지 뭐' 미루는 습관 |
| | 21.6% | '여유가 없어' 시간과 비용 부족 |
| 5위 | 7.2% | '뭘 할 기운도 의욕도 없어' 방전된 체력 |
| 6위 | 1.8% | '네가 할 수 있겠어?'하는 외부 시선 |
| 7위 | 0.9% | 기타 |

Q 당신이 생각하는 '의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42.3%

1위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위한 노력



- | | | |
|----|-------|---------------------|
| 2위 | 25.2% | 한계 극복을 통한 자신감 상승 |
| 3위 | 18.9% |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하는 집중력 |
| 4위 | 6.3% | 나의 성장 에너지 |
| | 6.3% |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짜릿함 |
| 6위 | 0.9% | 기타 |

Q 의지와 결과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까요?

68%

1위 의지와 결과는 큰 관련이 있다



- | | | |
|----|-----|-------------------|
| 2위 | 28% | 의지와 결과는 다소 관련이 있다 |
| 3위 | 2% | 의지와 결과는 관련이 없다 |
| 4위 | 1% | 의지와 결과는 반비례한다 |
| | 1% | 잘 모르겠다 |

Q 의지를 다지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49.5%

1위 자신과의 굳은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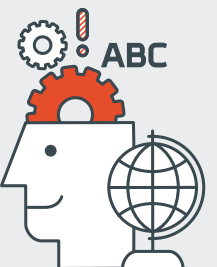


- | | | |
|----|-------|------------------|
| 2위 | 24.3% | 주변 환경의 긍정적 변화 |
| 3위 | 11.7% | 회사의 지원과 격려 |
| 4위 | 9% | 지인·친구·가족들의 조언 |
| 5위 | 3.6% | 독서·성공담 등을 통한 깨달음 |
| 6위 | 0.9% | 보약·진료 등 건강 보충 |
| | 0.9% | 기타 |

Q 지금 가장 의지를 갖고 몰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30.6%

1위 끝없는 발전을 위한 '자기개발'



- | | | |
|----|-------|-------------------|
| 2위 | 26.1% | 업무와 사랑에 빠졌다! '일' |
| 3위 | 18.9% |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운동' |
| 4위 | 12.6% | 엔도르핀을 높여주는 '취미' |
| 5위 | 11.7% | 기타 |

함께 호흡하며 더 크게 나아갈 것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의 새로운 가족이 되다

지난해 세아베스틸이 인수한 포스코특수강이 세아창원특수강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 3월 23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세아창원특수강 임직원들은 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국내를 넘어 글로벌 리딩기업을 목표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사명 변경 및 본격적인 업무 개시

세아창원특수강 임직원들이 지난 3월 20일 세아타워에 새 동지를 틀었다. 지난해 12월 4일 포스코특수강 주식매매 계약이 성사된 후 약 3개월만에 공식적으로 세아의 가족이 된 것으로, 이름도 새로이 변경되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지난 연말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신사명사 내 공모에서 임직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이름이다. 세아그룹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아’와 ‘창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조직개편도 단행됐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세아베스틸 이승휘 부회장과 이지용 전무가 각자 대표이사를 맡게 됐고, 윤기수 부사장은 세아창원특수강 영업부문을, 이태성 전무는 세아창원특수강 경영기획부문을 겸한다. 박동우, 왕성도, 조기찬 이사는 각각 세아창원특수강 마케팅, 수출, 기획부문을 담당하게 됐다.

대한민국 M&A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

지난해 말,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합병은 대한민국 철강업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M&A로 주목 받으며, 세계 최대 특수강 브랜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대감을 모았다. 또한 무계목 강관사업의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특수강 제품의 일괄 공급이 가능해져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그 동안 하락된 세아창원특수강의 경영상황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대해 이승휘 대표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볼 수 있다. 뜻을 모아 좋은 회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경영기획부문 이태성 전무 역시 “세아는 겉모습이 화려한 회사가 아니라 내실 있는 회사”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식구가 된 세아창원특수강 임직원들에게 “세아의 지난 역사와 발자취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통합 시너지와 글로벌 역량 기대

특수강 업계의 양대 산맥인 두 회사가 하나가 된 만큼 새로이 세아의 일원이 된 세아창원특수강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시너지를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세아창원특수강 재무팀의 윤승일 차장은 “대내적으로 철강업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국내 굴지의 특수강 업체가 합쳐져 글로벌 선두 특수강 업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세아창원특수강 인재개발팀 안덕준 대리도 “기존의 직원들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문화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융합이 되어 빠른 정착을 이루는 것이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길”이라고 꼽았다. 세아베스틸은 세아창원특수강의 빠른 안착을 지원하고,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 간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바탕으로 양사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며 기업 간 결합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제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글로벌 종합 특수강 리딩 기업을 향한 힘찬 도약을 함께 이어나갈 것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버킷 

제1회 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

봄비가 대지를 축축히 적시던 지난 3월 18일 저녁,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故 이운형 회장의 문화예술 후원에 대한 뜻을 이어받아 설립된 ‘이운형문화재단’의 첫 음악회를 관람하기 위해서이다.



이운형문화재단의 첫 번째 음악회 개최

수많은 관객이 숨죽인 채 무대를 응시한 가운데, 하이라이트 조명이 켜지고 첼리스트 이강호와 하피스트 김지인의 하프 연주로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이날 음악회는 오랜 시간 문화예술을 후원해 온 故 이운형 회장의 뜻을 기리고 계승하는 의미로 기획되었으며 이운형문화재단이 출범하고 무대에 올리는 첫 공연이다. 공연의 부제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버킷’은 살면서 한번쯤 봐야 할 오페라 작품들이라는 뜻과 故 이운형 회장이 13년간 후원해 온 오페라 작품들을 모아서 선보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단의 이사장인 박익숙 회장은 공연에 앞서 “이운형문화재단이 내딛는 첫걸음인 오늘의 무대를 통해 아름다운 예술, 감동의 울림을 만끽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세계적 거장과 라이징 스타들의 콜라보레이션

첼로와 하프의 애잔한 선율이 그치고, 이어서 무대 한 편에서 베이스 사무엘 윤이 등장하여 ‘에우리디체 없이 무얼 하리오(Che faro senza Euridice)’를 부르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애절한 슬픔을 노래했다. 사무엘 윤은 독일 쾰른시가 수여하는 최고 오페라 가수상인 ‘오펜바흐 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저력 있는 성악가로, 이날 공연에는 그를 비롯해 소프라노 베시 혼(Betsy Horne),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과 이운형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는 젊은 오페라 인재인 소프라노 박혜상과 테너 김승직 등이 함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선보여 공연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 밖에도, 前 국립오페라단장 이소영이 연출을, 前 국립오페라단 상임지휘자 김주현이 지휘를 맡았으며 60인조 오케스트라 ‘아시안 클래식 플레이어즈(Asian Classical Players)’의 협연으로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오페라 전도사 故 이운형 회장의 마음을 담은 명곡 엄선

이번 공연은 ‘問(문)’, ‘亂(난)’, ‘淨(정)’, ‘獻(헌)’이라는 네 가지 테마를 기반으로 하여,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Orfeo ed Euridice>, <피가로의 결혼; Le Nozze di Figaro>, <팔스타프; Falstaff> 등의 주요 아리아와 합창곡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피가로의 결혼>과 <팔스타프>는 각각 이운형 회장이 생전 후원했던 첫 작품과 마지막 작품으로, 오랜 시절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페라 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운형 회장의 마음을 오롯이 담아냈다. 또 한편으로는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the Opera>과 같이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을 엄선하여 관객이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엇갈린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는 <피가로의 결혼>, 베이스 한명원이 우정 출연해 유쾌한 인생사를 보여 준 <팔스타프>,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오페라의 유령>까지, 총 70여 분간의 아름다운 선율이 이날 공연을 가득 채웠다.

영상, 현대무용 등 다채로운 무대 연출

이날 공연에서는 오페라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무대연출이 돋보였다. 여러 작품을 함께 선보여야 하는 공연 구성의 특성 상, 작품마다 각각의 무대 세트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을 조명 효과와 영상으로 해결했다. 곡의 흐름이나 극중 인물의 심리 변화에 따라 무대 영상은 굵이치는 선이 되었다가 한껏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새가 되기도 하고, 머나먼 우주 공간으로, 사랑하는 이와 함께 바라보는 밤하늘의 풍경으로 바뀌곤 했다. 여기에 무용수 이경구와 임진호의 환상적인 춤 공연이 더해져 음악, 조명 등과 어우러지며 관객의 감동과 흥미를 높였다. 아이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한 사우 가족은 “영상도 노래도 모두 아름다웠다. 아이가 집중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양하게 변화하는 영상 덕분에 공연에 빠져들어서 감상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관객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근무하는 남편과 함께 공연을 보러 왔다.”라며 “멀리서부터 공연을 보러 온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아합창단과 광명시립합창단의 합동 공연

이날 공연의 마지막 무대는 세아그룹 합창단 48명과 광명시립합창단이 함께 부른 ‘가라, 상념이여(Va pensiero)’로 장식됐다. 이 곡은 오페라 나부코 3막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부르는 합창으로, 모든 오페라 합창곡 중에서도 가장 감명 깊은 걸작으로 꼽혀왔다. 이날 공연을 위해 결성된 세아합창단은 현장 근무자, 연구직 등 세아의 각 분야와 계열사 유니폼을 착용하고 무대에 올랐다. 무대 위를 가득 메운 합창단은 하나의 웅장한 목소리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쓰라린 아픔과 그럼에도 황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는 빛’을 노래했다.

곡이 끝날 무렵, 무대 위 전광판에는 ‘그분을 공연으로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한 줄의 메시지가 나타나며 공연을 지켜보던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무대의 막이 내려지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커튼 콜 박수가 이어졌다. 한 관객은 “이제껏 오페라를 생소하게만 여겨왔는데, 이번 기회에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합창곡은 무척 감동적이었다. 세아의 가족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한 디딤돌

이운형문화재단은 오랜 시간 순수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오페라를 사랑하고 후원해왔던 故 이운형 회장의 뜻을 기려 지난 2013년에 설립되었다. 예술에 대한 그의 열정을 이어받은 이운형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열정과 노력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학사업과 학술지원 사업으로 가능성을 가진 영재들에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 다양한 클래식 공연의 후원과 기획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예술의 감동을 선사하는 일, 이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운형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자 존재 이유이다. 내일의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를 배출하고, 클래식 대중화에 좋은 자양분이 되는 것, 그리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 이날의 음악회는 그를 위한 서막곡이었음에 분명하다.



차세대 리더들의 의지와 도약



제6기 챌린지 리더 과정 수료식

지난 3월 27일 세아타워에서는 제6기 챌린지 리더 수료식이 있었다. 각 사에서 선발된 19명의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해결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그간의 교육을 마무리하는 형식이었다. 1년 여간의 챌린지 리더 과정을 통해 더욱 발전된 차세대 리더들을 만나본다.

세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양성한다

챌린지 리더 과정은 그룹 내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각 사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해 약 1년간 비즈니스 이해, 문제해결역량 강화, 현장 감각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과정 중, 문제해결



프로젝트 및 PT실습에서는 담당 업무에서의 문제를 발견하고 프로세스에 따라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교육한 뒤, 결과를 수료식에서 발표하도록 했다. 현장체험에서는 국내 계열사 지방 사업장을 방문하여 혁신활동 사례를 공유하였고 인도네시아 우수기업을 탐방해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온라인 MBA 교육을 통해 비즈니스의 이해도 도왔다. 특히 6기 챌린지 리더 과정은 기존 관리자 기본 자질에 대한 강의의 일변도 교육에서 벗어나, 대리와 과장 직급의 필수역량인 문제해결력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 코칭이 이루어졌다. 종전과는 다른 강도 높은 교육으로 낯설어 하는 이도 있었지만, 만족도가 가장 컸던 과정으로 꼽히기도 한다. 세아제강 정요성 대리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수업과는 다른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식을 실행하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층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제해결의 구조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챌린지 리더들이 현장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교육을 연계할 계획이다.

두근두근, 문제해결 프로젝트 발표

챌린지 리더 수료식은 개인 별 문제해결 프로젝트 발표로 이루어졌다. 먼저 세아홀딩스 인재경영팀 신상호 상무가 프로젝트 심사위원 9명을 대신해 격려와 인사말을 전했다. 세아제강 정요성

대리의 발표를 시작으로 쉴 틈 없이 이어진 19명의 발표는 장장 5시간 동안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심사위원들의 예리한 질문에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 역시 챌린지 리더다운 모습이었다.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해 발표자 중 1, 2, 3등을 시상하는 순간이 돌아왔다. 시상자로 나선 세아 FS 천정철 전무는 “챌린지 리더들의 능력과 역량에 많이 놀랐습니다. 1, 2, 3등은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열아홉 분 모두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크게 성장할 챌린지 리더들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탄성과 아쉬움의 분위기가 뒤영긴 가운데 1등은 ‘베어링강 주주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및 적용 결과’를 발표한 세아베스틸 김성유 과장, 2등은 ‘대형 압연재 글로벌 품질 확보 방안’을 발표한 세아베스틸 이찬우 과장, 3등은 ‘OCTG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한 세아제강 정요성 대리가 차지했다. 동료들의 축하 세례 속에서 세아베스틸 김성유 과장은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며 씩씩러운 듯 1등 소감을 전했다. 수상자들을 비롯해 6기 챌린지 리더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한다. 챌린지 리더 과정은 정말 특별한 기회라고. 그렇기 때문에 챌린지 리더가 된다면 교육기간 동안은 정말 열심히, 즐기면서, 기쁘게 임하란다. 그러면 반드시 반짝거리는 그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이다. 저마다 반짝이는 보석 하나씩을 얻은 챌린지 리더들. 그들이 앞으로 어떤 활약과 승리를 거둘지 기대해본다.



역경을 딛고 전화위복으로 위기에서 빛난 세아의 의지

인생사 늘 호사만 이어지지 않듯, 세아의 55년 역사에도 위기의 순간은 있었다. 그러나 세아는 위기 앞에서 쉽게 조바심내거나 두려워하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경쟁력을 높여 왔다. 1970년대의 석유파동, 1990년대의 IMF 외환위기 사태,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변화무쌍한 격동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온 세아의 역사를 돌아본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제1호 조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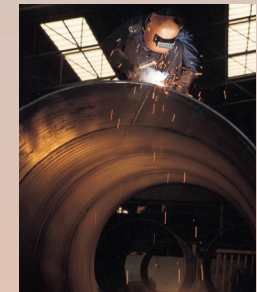
부산철관공업(현 세아제강)은 창업의 핵심 설비인 조관기의 도입을 추진하며 독일로부터 최신 설비를 들여올 목적으로 상공부에 수입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경계한 경쟁업체의 방해공작과 국내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일방적 방침으로 인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 부산철관공업은 차선책으로 상공부가 인정하는 재일교포의 재산반입 형태를 빌어 중고기계를 반입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당시 상공부는 한·일간 무역거래에서 적수입을 막는 대신 예외로 재일교포의 재산반입은 허용하고 있었다. 때마침 일본 가시하라 파이프사(社)에서 아세틸렌가스 용접방식의 조관기를 처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들여오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마산항에 도착한 중고 조관기는 이런저런 이유로 통관에 제동이 걸렸다. 조관기는 공매에 붙여졌고, 부산철관공업은 입찰을 통해 가까스로 이를 확보할 수 있었다. 부산공장의 창업설비인 '제1호 조관기'는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도입되어 초기 강관생산을 담당하는 주역이 되었다.

'하면 된다'는 신념과 투지

창업 당시 19명으로 출발한 인원은 2, 3호기 가동으로 100여 명으로 늘었지만 일손은 여전히 모자랐다. 특히 제품 출하는 전 직원이 달라붙어야 하는 큰일 중 하나였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이었고, 운반수단도 부족했던 때라 철도 출고가 있는 날이면 조관반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총동원되어 제품을 마차나 소달구지에 실어 부산 우암역까지 운반해야 했다. 협소한 공간에서 무거운 철강재를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파이프 부딪히는 소리에 놀라 말들이 날뛰는 일도 있었다. 출하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날 판매량, 재고량을 장부에 정리하느라 퇴근은 밤 9시가 지나야 가능했지만, 직원들은 한마디 불평 없이 열정과 패기로 일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가 나올 때는 서로를 응원하며 의지를 다졌다. 창업주 해암은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주어 어려움과 난제들을 하나씩 극복해냈다.

<세아의 의지가 빛난 순간들>

- 1974**
미주 강관 시장 개척으로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돌파구 마련
- 1975**
특수사양 강관 JAKER 출시로 2차 석유파동 극복
- 1977**
품질 불량 문제 최소화를 위한 서울공장 스파이럴 초음파 탐상기 설치
- 1995**
외환위기에서도 내실경영을 기반으로 삼미특수강 STS 공장 인수
- 1996**
한국알로이로드(현 세아 ESAB) 스테인리스 봉강 사업을 인수하며 외환위기 속에서도 약진
- 1998**
세아제강 군산공장 준공 및 판재사업 진출로 경기침체 속에서 세아의 건실함을 입증
- 2003**
한국번디(현 세아 FS)의 해외 진출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지 실현
- 2006**
금융 경색의 여파 속에서 세아 ESAB 창원공장 준공 및 창원시대 개막
- 2008**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한 상황을 딛고 세아베스탈 대형단조사업 진출
- 2009**
글로벌 금융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전면적인 비상경영체제 전환
- 2014**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OCTG 반덤핑 관세발표에 따른 세아제강 비상경영체제 돌입



위기를 딛고 품질 안정으로

부산철관공업은 향후 강관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 잇단 설비 신, 증설을 추진했다. 1972년 20인치 조관기 도입에 이어 1973년에는 새로운 스파이럴 조관기가 설치됐다. 당시 서울공장의 6인치 강관은 대미 수출로 매출증대에 기여한 효자품목이었다. 하지만 미국에 수출한 물량에 클레임이 발생했다. 강관소재는 재질에 따라 열압착을 통해 용접하는데, 이때 용접부의 재질 변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 번 더 해야 하는 것을 경험 부족으로 몰랐기 때문이었다. 산소를 이용해 사람이 직접 열처리하던 시절이어서 용접 품질이 완벽할 수도 없었다. 밀려드는 주주와 까다로운 품질 요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간 안에 선적을 마치기 위해 직원들은 수작업을 하며 수없이 밤을 지새웠다. 이를 계기로 강관의 고급화와 제대로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1977년 부산철관공업은 독일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자체 기술진과 공동으로 스파이럴 초음파 탐상기를 설치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품질 안정화를 기하여 불량 발생을 최소화했다.



한국번디의 중국 해외법인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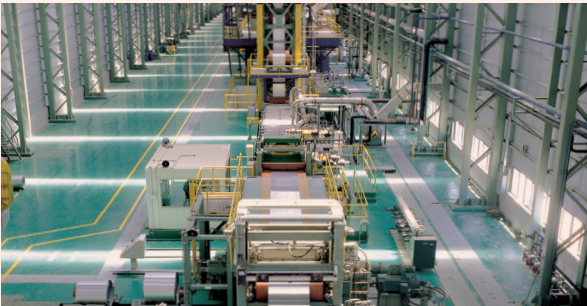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 부두에 산을 이룬 부산파이프 강관

수출 확대로 석유파동의 돌파구 열어

1974년 미주 시장의 개척은 1차 석유파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부산파이프(현 세아제강)는 오کل랜드의 알라스카스틸사를 비롯해 뉴욕의 아소마(ASOMA)사, 텍사스주의 텍사스 파이프(Texas Pipe)사 등과도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 때 계약액은 1년 분의 수출물량에 달하는 3,000만 달러 규모였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수출 증가율이 주춤하게 되자, 부산파이프는 중동 수출에 박차를 가했다.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성공 여세를 몰아 이란 공략에 나섰다. 이란의 첫 상담자였던 사업가 자카리안(Zakarian)은 0.5~1.5인치 구경의 전선관 1,500톤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가 주문한 품목은 관 두께가 1mm로, 양쪽 관 끝에 소켓을 끼워 넣다 보면 관 끝머리가 떨어져나갈 위험이 컸다. 기술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에 대세였으나 해암의 강력한 의지로 계약은 추진됐고, 특수 사양에 의해 제조된 이 전선관은 'JAKAR'라는 브랜드를 달고 시장에 나오게 됐다. 이 수출의 성사를 계기로 이란을 비롯해 중동 수출이 봇물 터지듯 이어졌고, 부산파이프는 석유파동의 위기를 비껴갈 수 있었다.

외환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내실경영

1997년 금융경색의 여파는 철강업계에도 예외 없이 불어 닥쳤다. 하지만 세아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였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인원을 감축했지만, 세아는 건축경영과 사업 합리화 등으로 본연의 궤를 튼튼히 했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무너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좌초할 때, 세아는 인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건실한 경영을 입증해 보였다. 세아제강의 삼미종합특수강 스테인리스 공장 인수와 스테인리스 부문 창원 통합, 판재사업 진출이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다. 한국번디(현 세아 FS)의 해외 진출 확대 및 세아 ESAB의 창원시대 개막 등 계열사들의 악진도 외환위기 속에서 더욱 빛났다. 특히 1998년에 전개된 세아 특수강의 'JS 123 운동'은 세아의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IMF 외환위기는 환율 급등으로 인한 외화 차입, 리스크 등으로 경영 부담을 가중시켰다. 주 수요 산업인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적자가 거듭됐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컬러강판 제조라인(Continuous Color Coating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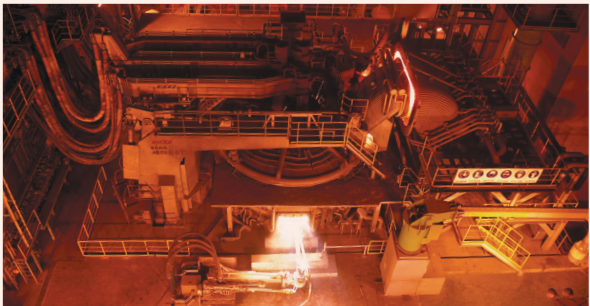
세아특수강은 '더 나은 품질로 더 생산 · 판매한다'는 결의로 'JS 123 운동'을 시행했고, 고객 서비스 강화와 판매처 확보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세아베스틸 대형단조사업 진출

중동에서의 플랜트 수주확대와 자동차, 조선산업의 호황 등으로 대형단조제품의 수요가 커지면서 고성장성을 지닌 사업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선발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과 공급과잉 상태인 시점에서 후발로 뛰어드는 데 따른 고민과 부담도 컸다. 하지만 세아베스틸은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리스크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2008년 대형단조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특수강 부문의 정체에 대비하여 단조사업으로 미래 성장의 돌파구를 열기로 한 것이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대형단조사업 진출은 위기 뒤에 다가올 기회를 선점하여 경쟁력을 갖춘다는 강한 의지가 뒷받침 되었다. 총 800억 원이 투자된 전기로는 2010년 1월 완공을 거쳐 2월부터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대형단조에 연 31만 톤의 쇳물을 끓여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써 세아베스틸은 쇳물에서부터 대형단조품까지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대형단조 업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정면돌파로 맞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급격한 경기 위축을 불러왔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경기침체 양상을 보인 철강업계는 원재료, 제품 할 것 없이 가격이 대폭락하는 상황을



대형단조 전용 150톤 전기로

맞았다. 2008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철강시황은 세아그룹 전체에도 위기로 다가왔다. 세아는 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2009년 초부터 전면적인 비상경영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방침을 정하여 강력한 실천을 독려하였다. 비상경영체제 세부 실천계획을 세우고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위기의 정면 돌파에 나섰다. 계열사 별로 혁신적인 비용 절감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관행의 개선, 전략 제품의 판매 확대를 추진하는 등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OCTG 미국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비상경영체제 돌입

2014년 7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최종 관세율을 발표했다. 한국 내에는 OCTG의 수요가 거의 없어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될 정도로 미국 시장 비중이 컸던 만큼 큰 타격이 예상됐다. 세아제강의 위기의식은 고조됐다. 주력 제품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세아제강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세아제강의 비상경영체제 선포는 국내외 시장에 장기적으로 대처할 길을 모색하고 그동안의 성장가도 속에서 놓친 부분을 한 번 살펴보는 기회로 승화하자는 결정인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 모티브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비상경영체제의 긴장감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세아제강은 4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비상경영체제를 해제하고 경영시스템을 환원시켰다. 숏한 위기의 순간마다 세아는 두려움보다는 용기로, 좌절보다는 꺾이지 않는 의지로 맞서왔다. 그리고 반세기 동안 쌓인 경험과 저력을 발판 삼아 더 굳센 발걸음을 이어갈 것이다.

세아 FS의 중국 내 핵심거점으로

Qingdao SeAH Precision Metal

2015년 세아 FS의 중국재편 전략에 따라 청도세아는 중국 내 다른 법인들의 소재 및 가공 제품 판매를 지원하게 됐다. 세아 FS 중국 사업의 중추적인 생산 및 가공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는 청도 세아, 그곳에서 보내온 소식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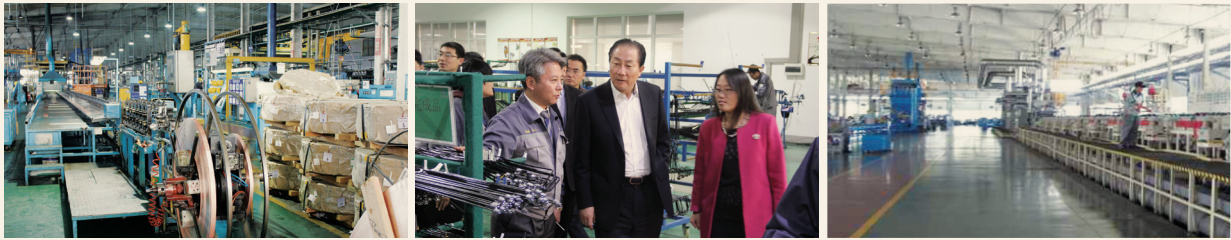
글 청도세아 **황윤재** 차장

천혜의 자연에 둘러싸인 최적의 입지

청도세아는 산둥성 청도시 개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도공항에서 서남 방향으로 1시간 거리이며, 회사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로는 소주산이 위치하고 있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자리해 있습니다. 교통입지도 탁월합니다. '청도 해상대교'를 건너면 좌측에 바로 청도세아가 보일 것입니다. 산둥성의 수출입 항구도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Haier, SMGW과 같은 가전, 자동차 생산 공장과 이와 관련된 부품, 정밀화공제품 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사업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청도세아의 면적은 총 33,988㎡로 김기혁 이사보를 비롯해 영업 담당의 황윤재 차장, 관리·재무·구매 담당의 도조 과장, 기술개발 담당의 정찬래 과장, 생산 및 가공 담당 방정환 과장, 생산 소재 담당 박정현 과장 등 총 3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도세아가 걸어온 발자취

청도세아는 자동차의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를 만회하기 위하여 국내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태동되었습니다. 관련 부품의 현지화와 시장점유율 확보,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원가 경쟁력 확보, 중국 내 자동차 수요 급증과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중국시장의 잠재력 등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도세아는 2007년 8월 3일 법인을 설립하고 2008년 공장동 및 설비를 완공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9년 5월 22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2009년 중국 현대/기아차에 TDW, PVF 제품 공급을 시작했고, 2010년에는 중국 현지 고객사를 개발하여 SGM, BYD, Great Wall 자동차 등에 자동차용 튜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자동차용 튜브 가공 시장을 개척하여 현재 SGM사에 가공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내 글로벌 자동차사의 1차 벤더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에 이어 가공사업으로 확대

청도세아에서 다루는 제품은 자동차 및 가전용 스틸 튜브와 그와 연관된 Assy 제품 등입니다. 자동차용 튜브의 경우 Brake, Fuel, TOC, Power Steering Line에 적용되며 가전용 튜브는 냉장고 내 Hot Pipe, 콘덴서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도세아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은 자동차용 스틸 튜브 부문 15%, 냉장고용 콘덴서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북경현대자동차, 동풍열달기아차, SGM, BYD, 광주자동차, 중딩금아, TI CHINA, Haier, MIDEA가 있으며, 자동차용 튜브 가공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튜브 가공 제품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Haier 등 중국 주요 가전사를 상대로도 콘덴서 모듈러 가공 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기탈출의 해법은 역시 품질과 기술

중국 내 소재 및 가공 업체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스틸 튜브 생산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자동차 회사의 지속적인 상품 보충 요구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보다는 저가용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사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도세아는 여전히 ‘품질’로 정면 승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청도세아만의 경쟁력은 단연 세아 FS의 30여 년간의 강관 제조 노하우와 업계 최고의 품질, 그리고 고객 만족 A/S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열정, 끊임없는 도전’의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청도 세아는 고객사에 차별화된 튜브 제조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보증, 그리고 자동차용 튜브 제조와 가공기술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이러한 노력의 결과, 청도세아는 2013년 39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14년에는 493억 원으로 세아 FS 자회사 중 매출액 1위를 실현했습니다. 올해 역시 679억 원의 매출 목표를 향해 전 직원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도세아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산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중국 내 분산된 조관 설비를 청도 공장으로 이설하여 총괄 생산,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시장의 동향과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R&D 센터를 설립하여 미래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소재 판매 및 영업부문에서 자동차 부품 가공 업체로 발전하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자동차 시장은 7% 수준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족한 도로 사정, 악화되는 대기 오염 등으로 일부 대도시에서는 자동차 구매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반면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성장세에 있어 친환경적인 튜브 제품의 시장도 함께 성장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청도세아는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새로운 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며 R&D 센터를 운영하여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청도 현지에서 전하는 생생토크

난해한 중국 음식 이름

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중국식당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먹어봐야지’하고 들어섰다가 음식 사진이 없어 그냥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蚂蚁上树는 개미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뜻이고, 炒苍蝇头는 파리머리 볶음이라는 뜻이며, 松鼠桂鱼는 다람쥐 생선, 红烧狮子头는 사자머리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처럼 중국 식당에서는 음식 이름만으로는 어떤 음식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워 중국 요리를 시키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맥주축제가 열리는 도시 청도

청도(칭다오)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맥주이지요. 맥주의 도시 청도에서는 매년 8월 중순부터 보름 가량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현재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청도의 대표 축제랍니다. 축제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저녁만 되면 청도맥주박물관 앞은 반짝반짝 조명을 켜 맥주점들이 늘어서 있는 맥주 거리로 변신합니다.

밤 조명이 더 아름다운 5·4 광장

5·4 광장은 청도 신시가의 랜드마크로 여행자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길을 찾기도 합니다. 이곳은 청도가 5·4운동의 발단이 된 것을 기념하며 조성된 공원으로,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이곳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인 햇불 모양의 ‘오월의 바람’은 바람을 붉은색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해가 지면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색의 조명이 비춰 더욱 아름답습니다.



세아 ESAB 제품개발팀

두 주먹 불끈 2015 또 하나의 명품을 창조한다

갈수록 더해지는 용접업계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세아 ESAB 제품개발팀은 저가형 용접재료 개발에 성공해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5,100톤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으며, 그 성과로 세아업적상 기술개발부분 은상 수상의 영예까지 안았다.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을 제품개발팀의 그간의 행보를 들어본다.

열 명의 팀원들이 만들어 내는 환상의 하모니

세아 ESAB 제품개발팀은 조선, 해양플랜트, 발전 설비, 석유 화학, 건설, 기계,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용접재료의 개발과 함께 기존 제품의 적용 범위 확대, 용접 특성 향상 등의 제품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길웅 팀장의 지휘 아래 9명의 팀원들이 탄생시킨 저가형 신제품은 2014년 1월부터 생산돼 현재까지 5,100톤 이상의 판매를 기록할 만큼 눈부신 매출을 올리며, 세아업적상 기술개발부분 은상까지 안겨 주었다. “세아업적상 수상은 제품개발팀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발품의 안정적인 생산, 품질관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한마음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세아 ESAB의 전 직원들을 대표해서 받은 것입니다.” 세아업적상 은상 수상의 소감을 겸손하게 전하는 길웅 팀장은 2014년의 좋은 성과를 발판으로 올해도 세아 ESAB의 미래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와

제품개발에 기반이 되는 기초 기술연구 및 분석법 등의 연구를 통해 용접 재료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의지에 찬 포부를 밝혔다.

26개월의 연구를 통해 탄생한 저가형 신제품 FCW

기존에 범용 제품으로 분류되는 Dual Shield 7100은 조선, 철골 및 건축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 중 하나였다. 하지만 내수 시장 및 조선 산업의 불황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판매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가격 경쟁력 또한 매우 치열해 내부 이익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중국 및 동남아 로컬 업체의 저가 제품이 국내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시장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그로 인해 제품개발팀은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킨 용접재료 출시가 절실했고 26개월이라는 긴 연구기간 끝에 가격경쟁력과 원가절감이 극대화 된 저가형 신제품을 탄생시켰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당시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라고 길웅 팀장은 어려웠던 상황을 회고했다. 주요 원재료인 금홍석(Rutile)의 경우, 저가 금홍석은 다양한 공급처 수급이 가능해서 활용도가 높았지만 반면 제품 적용에 있어서는 기술적 접근의 어려움이 매우 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적용 연구를 통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고, 최적의 제품 설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제 공격적인 국내 내수 마케팅을 가능하게 해준 저가형 신제품은 중국 내수 및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향후 4년간 22억 원 정도의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커뮤니케이션만이 생명력 있는 팀을 만든다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제품개발팀은 다른 부서와



고객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할 때가 많다. 따라서 생산 공정 및 시장, 고객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 또한 절실하다. 하지만 연구원의 특성 상 개개인의 업무에 치중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서로 조금만 소홀해도 의사소통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 “조직의 생명은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개발팀은 2인 이상의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단합을 위한 정기적인 산행 및 가족모임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소통이란 서로 막힘없이 주고받는 것이다. 여러 통로로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것만큼 순조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제품개발팀의 이러한 노력들은 문제를 줄이고 혹여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 과정을 짧고 빠르게 도와준다. 그래서일까?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형제처럼 챙기는 모습이 촬영 현장에서도 느껴진다. 옷매무새를 만져주는가 하면, 잘 웃지 못하는 동료를 위해 온몸으로 웃음을 불사르는 모습이 마치 한 가족이 따로 없다. 이렇듯 한결같이 잘 따라주는 팀원들이 고마운 길웅 팀장은 오늘에서야 사보를 통해 진심을 전한다고. “너무나 잘 해주고 있는 팀원들에게 칭찬보다는 채찍질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품개발팀을 있게 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품개발팀, 황제펍권의 허들링처럼

“아마 모든 연구원들이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밤낮이 없고 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마쳐야 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가중되죠.” 용접재료의 시장은 세계 경기 불황과 중국 용접업체의 성장에 따라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엔저 약세로 수익성마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원가절감과 고부가 제품 개발은 제품개발팀의 숙명이 됐다. “FCW 제품 개발에서도 느낀 점이지만 팀워크만큼 의지를 열정으로 불태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또 팀원들 간에 배려만큼 큰 힘이 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길웅 팀장을 비롯한 9명의 팀원들은 황제펍권이 허들링으로 극한의 추위를 이겨내는 것처럼, 힘든 부분을 나누고 거들면서 각자의 고충과 과제를 가볍게 해결한다. 마치 한마음 한 몸처럼 기쁘고 어려운 것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자 또 함께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하는 제품개발팀이 2015년 의지를 불태우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획기적으로 제품 설계 원가를 절감한다. 둘째, 고부가가치의 신규 제품 개발에 주력한다. 셋째, 주력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변화무쌍한 고객의 니즈를 보다 집중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는 제품개발팀. 파이팅 넘치는 그들의 의지가 FCW 같은 또 하나의 명품을 만들어낼지 눈여겨 볼 일이다.



2백여 가지가 넘는 원재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작업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고객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 순간 불굴의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설계로 제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 말입니다.

- 길웅 팀장



국내외 조선업계 시장의 불황과 엔저의 영향으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가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아 ESAB의 모든 임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고 각자 목표를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 김영한 책임연구원



잘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 제품이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하고 생각하는 것이 제품개발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정원정 책임연구원



신제품 개발 업무를 할 때 대부분 한 번 만에 성공할 수는 없고 항상 실패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100번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1,000번이라도 시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 양우성 책임연구원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의지가 꺾여 낙담하거나 고객에 대해 반감을 가지면 더 이상 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 현상을 반성하며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개선된 제품을 가져가도록 노력합니다.

- 황형철 책임연구원

세아 ESAB 제품개발팀 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순간은?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시간에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의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매주 월요일이면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의지를 다지려고 합니다.

- 최창현 선임연구원



불굴의 의지라는 강한 마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감히 이를 수 없다고 생각될 만큼 목표를 높게 세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과감하게 맞서 동기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저의 노하우입니다.

- 김영준 선임연구원



불굴의 의지를 영어로 하면 'An iron will'입니다.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로 여러 사업 분야가 침체돼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종합용접기업인 세아 ESAB의 'An iron will', 즉 강철과 같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삼을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백성현 연구원



세계적으로 불황인 지금을 기회로 만들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불황이 아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입사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지금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 나가 보겠습니다.

- 정재현 연구원



A/S 및 B/S의 고객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고객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때로는 고객지원 업무가 마음만큼 쉽지 않고 해결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신문구 연구원



권중재 사원은 출장 중인 관계로 함께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세아제강 실수요팀

강철처럼 굳은 의지로 시장의 판을 뒤집다

지난 2013년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와의 독점계약을 체결한 이래 3년 연속 계약을 수주하며 세아업적상 영업부문 은상을 수상한 의지의 세아인들이 있다. 고객사 관리와 신규 고객사 개척을 위해 하루의 반 이상을 사무실 밖에서 보내는 세아제강 실수요팀 12명의 전사들이 그 주인공이다. 매달 주어지는 목표량 달성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며 영업맨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워가는 이들은 ‘미쳐야 미친다’는 자세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간다.

글 이지연

국내 강관 판매 시장의 최전방에 서다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시장 여건 속에서 팀원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진한 결과라 매우 기쁩니다.”라며 이권한 팀장은 팀원 모두에게 세아업적상 수상의 공을 돌렸다. ‘미친 듯이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산다는 실수요팀은 경쟁사들조차 영업력을 인정할 만큼 업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팀의 업무는 세아제강에서 생산하는 강관을 실수요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이다. 국내 주요 건설사와 관공서 등이 주요 고객으로 토목현장용 강관, 일반 배관, 국내 EPC와의 해외 프로젝트 소요 강관, 후육대경관 등을 판매한다. 직접 실수요자들을 만나야 하기에 경쟁이 치열한 국내 강관 판매현장의 최전방에 선 전사들이기도 하다. 17년차 영업의 베테랑 박근철 차장은 ‘어려운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기쁨’을 영업의 매력으로 꼽았다. 때론 범접할 수 없는 목표치에 좌절하기도 하고, 때론 기대하지 않았던 계약이 성사되는 기쁨을 맛보며 인생의 씨줄과 날줄을 오간다는 실수요팀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 배운다며 이구동성 입을 모은다.

다사다난했던 가스공사 독점 계약 스토리

이권한 팀장은 지금이야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가스공사 담당자인 김종룡 대리를 비롯해 팀원들과 함께 가스공사 독점계약 체결을 준비하던 2013년도에는 입이 바짝바짝 마를 만큼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털어놓는다. 과거 가스공사는 외주가공을 통해 5곳의 동종 업계에서 소요량을 공동 생산해 납품 받는 방식을 고수했다. 그러다 2013년부터 납품 조건이 한 업체와의 독점계약 형태로 바뀌었다. 당시 세아제강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JCOE 공장을 완공했던 터라, 사업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수주를 체결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실수요팀은 전략적 수주를 통해 가스공사의 6만 톤 물량을 독점계약하며 시장의 판을 바꿔 놓았다.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적자가 기록되는 상황이었기에 사내 유관 부서로부터의 압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종룡 대리는 장기화된 파업으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까 노심초사했다고 고백한다. “지체상환금 사수도 중요했지만, 가스공사와의 첫 독점계약인 만큼 전례를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세아제강을 지켜보는 눈들이 많았기에 꼭 제 날짜에 주문 물량을 납품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김종룡 대리는 납기 사수라는 불굴의 의지로 불철주야 생산 현장을 드나들며 생산자들을 설득했고, 팀 동료들 또한 팀워크를 발휘해 물량 확보에 힘을 보탰다. 이렇게 한마음

한 뜻으로 목표를 향해 달린 결과, 단 한 건의 지체상환금 없이 물량을 성공적으로 납품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적자였던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접어들면서는 가스공사 단일 업체에서의 영업이익만 163억 원에 달해 다소 무모해 보였던 실수요팀의 도전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는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대형 프로젝트 동반 진출이라는 또 다른 성과로 이어졌다. 이권한 팀장은 “젊은 피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정”이 실수요팀의 강점이라며 팀원 모두가 소중하다고 덧붙인다. 고객을 세심하게 챙겨주며 진심을 다해 다가간다는 입사 8년차 노동환 대리, 외근이 잦은 팀원들을 대신해 사무실 안에서 신속히 업무대응을 한다는 팀의 홍일점 손지혜 사원, 분위기 메이커 도영원 대리 등 12명의 실수요팀원들은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팀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No Pain No Gain, 최고가 되겠다는 의지

늘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내수 판매량의 40~60%를 담당해야 하는 실수요팀의 어깨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무겁다. “입찰의 고배를 마셨을 때는 그 트라우마가 오래 남아요. 그러나 이런 스트레스조차도 영업맨이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퍼하며 주저앉아있을 시간이 없죠. 새로운 도전만이 실수요팀을 살아있는 팀으로 만드니까요.” 끊임없이 소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하나로 똘똘 뭉치는 실수요팀은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자세로 각오를 불태운다.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라, 일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인정받기 위해 자기개발의 끈을 놓지 않는 실수요팀원들이다. “가스공사 입찰 이후, EPC를 포함한 전 아이템에서 시장의 판매구도를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사명이죠. 세아제강이 경쟁업체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1위의 강관판매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의지를 불태우겠습니다.” 모두에게 한 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라면 ‘일류로 살고 싶다’는 세아제강 실수요팀의 바람은 차디차고 냉혹한 시장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슴에 품은 순간 이미 시작됐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세아제강 실수요팀
이권한 팀장



오는 5월이면 입사한 지
만 20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5월이면 세아제강에 입사한 지 정확히 만 20년이 되는데, 돌아보니 그 시간이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입사 후 구매팀에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다시 한 번 능력을 검증받고 싶어 실수요팀에 들어왔는데요. 새로운 10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일에 빠져 산 것 같아요. 팀원들도 잘 만났고요. 일이란 사람이 하는 것이고 혼자서는 결코 잘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을 1부터 100까지 팀원들과 공유합니다. 우리가 왜 거기에 도달해야 하는지, 가서 얻는 게 무엇인지 공유하면서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갑니다.

목표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기러기가 V자로 떼지어 비행하는 이유는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상승기류를 받아 편안하게 비행할 수 있기 때문 이랍니다. 선두에 선 기러기가 지치면 뒤쪽에 있던 기러기가 앞서 나와 무리를 리드해 먼 길을 날아갈 수 있죠. 실수요팀도 지친 동료에게는 휴가, 연월차 등 리프레시 시간을 주어 에너지를 보충할 시간을 줍니다. 농구 게임, 동해 일출 여행, 볼링, 영화감상 등 취미생활도 함께하며 소통과 휴식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실수요팀 팀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가스공사 독점계약 건으로 업적상을 받긴 했지만 주위 동료들이 힘을 모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성과들이 쌓일수록 팀원들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실수요팀의 열정과 의지는 용광로처럼 뜨겁습니다. 앞으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세아제강 실수요팀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100점 아빠의 따스한 추억 만들기

— 가족은 나의 ‘봄날’

세아메탈 원주공장 생산설비팀 **김정운** 반장 가족

꽃샘추위는 오간 데 없이 유난히 따듯했던 3월의 어느 날. 가평의 한 글램핑장에서 세아메탈 김정운 반장 가족을 만났다. 아빠는 엄마랑, 큰아들 우진이는 동생 우석이랑 다정히 커플티를 맞춰 입고 상기된 모습이다. 결혼 11년 만에 처음 가져본다는 가족만의 시간. 살랑대는 봄바람처럼 달콤한 그들만의 봄나들이를 엿본다.

봄기운 충만, 행복 기운 충만

3월 중순임에도 벌써 봄 분위기가 완연한 가운데 들쭉이는 차 한 대가 글램핑장으로 들어선다.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환호성을 외치는 김정운 반장의 엔도르핀 우진이와 우석이. 인사를 나누기가 무섭게 축구공을 꺼내 들고 글램핑장을 활보하기 시작한다. “가족여행 간다고 신나서 어제 잠도 설친 아이들인데 에너지가 넘쳐나네요.” 김정운 반장의 아내 정미영 씨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나선 가족여행이 즐거운 모양이다. “실은 저희들도 들뜬 마음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막상 도착하니 피곤이 풀리는 듯해요!” 이날 김정운 반장이 체험하게 된 글램핑은 장비, 먹거리 등을 챙기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1층은 부엌, 2층은 잠자리가 마련돼 있다. 모든 것이 궁금하기만 한 아이들은 사다리를 타고 위 아래층을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김정운 반장과 정미영 씨도 낯생처음 해보는 글램핑이 신기하기만 하다. “정말 편리하게 돼 있네요. 여보, 이제 우리도 자주 좀 와요!” 아내 미영 씨의 행복한 주문이 이어진다.



함께하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오붓한 가족여행이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면, 내심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김정운 반장의 업무 특성 상 주말에 온전히 쉬기가 그리 쉽지 않다. 미영 씨 역시 맛벌이를 하다 보니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에 아이들 치다꺼리로 바쁘다고. “늘 마음 한편이 아리지요. 아이들 잘 때 집에 들어가고, 일어나기 전에 출근을 하니까.” 때문에 11살 우진이의 학교생활은 어떨지, 또 우석이가 유치원 생활은 잘하는지 도통 이야기 나눌 짬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아빠는 100점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은데~” 아빠의 미안한 마음을 들은 우진이는 김정운 반장을 치켜세운다. “늘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자는 모습 보면서 쓰다듬고 이불 덮어 준 것이 효과가 있나 본데요.” 김정운 반장이 ‘수면교감’이 효과를 보인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자 우석이, 우진이의 장난기가 발동한다. “그럼, 이번에는 닭싸움 교감은 어때요?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볼까요?” 두 아들의 선제공격에 이미 땅에 쓰러진 김정운 반장이지만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진다.

어묵 꼬치에, 노릇한 삼겹살, 통통한 햄까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다. 그 불변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발 빠른 업무 분담이 시작된다. 김정운 반장은 나무에 불을 피우고, 우진이와 우석이는 잔가지들을 모아 아빠를 돕는다. 엄마 미영 씨는 바쁜 손놀림으로 정확하게 어묵에 꼬치를 끼운다. 시어머니께서 선물해주신 정성 가득한 어묵 육수에 어묵 꼬치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잡고, 매운 연기를 마셔가면서도 아빠 옆을 지킨 우진이, 우석이 덕분에 이내 불도 알맞게 피어올랐다. “아빠~ 고기 구워주세요. 배고파요!” 하루 종일 축구에 닭싸움에 글램핑장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으니 배가 고파도 한참 곱돌 터. 아이들은 지금지글 익어가는 불판 위의 삼겹살과 새우를 바라보며 꿀꺽꿀꺽 침을 삼킨다. “와~. 역시 이 맛이야!” 흡사 CF의 한 장면인 듯 착각하게 만드는 아이들의 너스레 섞인 감탄사에 촬영장은 금세 웃음바다가 된다. 봄밤의 선선한 바람 속에서 직접 불에 구워 먹으니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꿀맛이 따로 없다. 아빠가 직접 입에 넣어주는 고기 맛은 어쩐지 더 맛있게 느껴진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많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런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모닥불은 피어오르고 이야기는 모락모락

온 가족이 따뜻한 모닥불 옆으로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운다. 그동안 미처 나누지 못했던 소소하지만 즐거운 얘기들. “나는 커서 소방관이 될 거예요.” “나는 이용대가 될 건데~”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묻는 질문에 들통나고 용감한 우진이가 소방관이 되겠다고 나서자 아빠를 닮아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우석이는 멋진 스매시 포즈를 취하며 이용대 선수처럼 되겠다. 오랜만에 따뜻한 커피 잔을 마주 잡은 김정운 반장과 미영 씨는 아이들이 나누는 사소한 대화가 예쁘기만 하다. “우진이는 아토피 때문에, 우석이는 말이 늦게 트여서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도 너무 감사하네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함께하기가 어려웠던 김정운 반장 가족은 참 오랜만에 공유하는 것이 많아졌다.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느끼고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여세를 몰아 김정운 반장이 아이들에게 소원 하나씩을 말해보라며 램프의 요정을 자처한다. “나는 아빠랑 같이 우석이 자전거 연습시켜주는 거요!” 평소 갖고 싶은 선물이라도 말할 줄 알았는데 큰 아들 우진이의 대답은 이렇게 의젓하고 대견하다. 우석기도 “나는 겨울이 되면 엄마, 아빠, 형아랑 썰매 타는 거요!” 진심이 담긴 아이들의 소박한 소원에 김정운 반장은 한없이 미안해진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박카스 가족

밤이 깊어간다. 어느새 글램핑장을 밝히던 불빛도 하나씩 꺼지고, 이제 우리도 헤어질 시간이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여행을 선물해 주신 세아가족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운 반장이 소감을 전한다. “엄마, 아빠 회사 진짜 좋다. 여행도 보내주고! 이런 회사는 아빠 회사 밖에 없는 거지?”라고 우진이 말하자 우석이는 “형아~ 다 아빠가 멋있고 일을 잘해서 그런 거야! 형아는 그런 것도 몰라?”라고 아빠를 으쓱하게 한다. 아내 미영 씨도 “모처럼 온 가족이 야외에 나와서 제대로 봄을 만끽한 것 같네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절실히 체감한 하루였어요. 곧 있으면 우진이의 생일도 있고 다음달에는 저희 결혼기념일도 있는데, 이 여행이 정말 큰 선물이 된 것 같아요.”라고 이번 글램핑의 소감을 전했다. 참 많은 의미가 더해진 이번 여행이 존재 이유만으로도 든든한 김정운 반장과 깊은 배려로 일인 다역을 도맡고 있는 아내 미영 씨, 밝게 웃는 모습만으로도 피로회복제가 되는 아이들에게 봄기운 충만한 따스한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래본다.

촬영협조 <라벤트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543-31 / www.raventree.co.kr / T. 1688-8614

비관의 현실마저 의지로 낙관하다

집념과 끈기를 다룬 영화 이야기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꿈을 실현하는 이야기는 영화의 단골 소재이다. 그만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극한 상황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음으로써,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용기와 의지를 북돋워 주는 3편의 영화를 소개한다.

Movie



언브로큰 (Unbroken, 2014)

꺾이지 않는 의지를 그린 감동 실화

감독 안젤리나 졸리
출연 잭 오코넬, 동돌 글리스, 가렛 헤드룬드

이탈리아 이민 2세라는 이유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던 루이(잭 오코넬)는 반항아로 성장하지만 육상을 시작하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열망을 갖게 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집념과 노력으로 루이는 19살에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되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해 세계가 주목하는 육상선수가 된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는 공군에 입대하게 되고 작전 수행 중 전투기 엔진 고장으로 동료 2명과 함께 태평양에 추락하고 만다. 지독한 굶주림과 갈증, 모진 파도 속에서도 루이는 “견딜 수 있다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삶의 의지를 놓지 않는다. 47일이나 표류하던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일본 군함. 루이는 850일 간의 전쟁 포로 생활이라는 또 다른 지옥과 마주하게 되고, 온갖 회유와 억압, 폭력에 맞서 싸우며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로 살아남아 미국으로 돌아온다. 언브로큰은 ‘루이 잠페리니’라는 실존인물의 경험을 극화한 작품으로, 그는 훗날 일본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 성화 봉송 주자로 참석하여 고령의 나이에도 끈질긴 의지를 보여주었다.



127시간 (127 Hours, 2011)

생존을 향한 끈질긴 사투

감독 대니 보일
출연 제임스 프랭코, 케이트 마라

개봉 당시 뉴욕타임즈로부터 ‘무결점 영화’라는 칭송을 받으며 미대륙을 뜨겁게 달궜던 이 영화는 ‘아론 랠스톤’의 실화를 그린 작품이다. 2003년 미국 유타주 블루 존 캐년, 홀로 등반에 나선 아론(제임스 프랭코)은 암벽에 떨어진 채 팔이 찢눌려 고립된다. 그가 가진 것은 산악용 로프와 칼, 그리고 500ml 물 한 병이 전부. 그는 127시간 동안 치열한 사투를 벌이며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친구, 연인, 가족, 그리고 그가 사고 전에 만난 사람들을 떠올린다.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침내 살아남기 위한 결심을 굳히고, 탈출을 위해서 급기야 자신의 팔을 잘라낸다. 극한 상황은 인간의 나약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기도 한다. 오가는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물은 바닥을 드러내가고 있으며 최소한의 음식조차 없는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해도 끝까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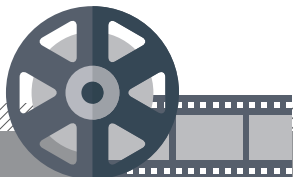


올 이즈 로스트 (All is Lost, 2013)

바다에 맞서는 한 남자의 고독한 항해

감독 J.C.찬더
출연 로버트 레드포드

인도양에서 요트를 타고 항해를 하던 한 남자(로버트 레드포드)가 선적 컨테이너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다. 네비게이션과 라디오도 모두 고장난 상태에서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나침반과 항해 지도, 그리고 자신의 오랜 항해 경험뿐. 작은 보트에 의지한 채 사나운 폭풍우와 상어가 출몰하는 바다 위에서 가지고 있던 보급품마저 차츰 줄어든다. 하지만 생명줄과도 같았던 식수통에 바다 물이 섞여 버리는 순간에도 그는 희망을 놓기는커녕, 햇빛에 물을 증류하여 식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어 위기를 극복한다. 남자의 이름도, 과거도, 왜 인도양에서 요트를 타는지도, 아무것도 영화는 알려주지 않는다. 구조를 요청하는 몇 마디 말을 제외하면 어떠한 대사도 없다. 한 남자의 고독한 사투를 조용히 따라갈 뿐이다. 누구라도 망망대해에 홀로 내던져진 것과 같은 두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 순간 삶을 포기할 것인가, 항해를 이어가 목적지에 다다를 것인가는 우리가 지닌 의지에 달려있다.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말한 “인간은 파멸 당할 순 있어도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문구처럼 말이다.



웃음으로 승화한 인생의 통찰 베르디의 <팔스타프>

더 많은 세아가족이 함께 오페라를 향유하고 배워보기를 바라며,
이번 호에서는 베르디 생애 최후의 작품 <팔스타프>를 소개합니다.

팔스타프(Falstaff)는 주세페 베르디(Giuseppe Fortunino Francesco Verdi)가 작곡하고, 셰익스피어의 희곡 <원저의 즐거운 부인들(The Merry Wives of Windsor)>을 기초로, 아리고 보이토(Arrigo Boito)가 대본을 작성한 3막의 오페라다. 이는 베르디의 마지막 오페라로, 그의 26곡의 오페라 중에서 오직 두 개의 코메디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은 1893년 2월 9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 스카라 극장에서 초연되어 큰 성공을 거뒀으며 세련된 멜로디의 창안으로 오랫동안 평단의 총애를 받았다. 오페라의 모든 기법을 체득하고 있는 베르디가 자유분방한 필치로 그린 팔스타프의 인간상은 단순한 희극극의 영역을 넘어 인생의 의미를 시니컬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전혀 베르디답지 않은 작품이지만 베르디 노년의 새로운 통찰이 깃든 오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랑의 듀엣, 팔스타프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 펜턴의 소네트, 나네트의 동화 노래, 피날레의 코믹 푸가(Fuga) 등이 이 오페라의



오페라 용어

푸가(fuga): 하나의 테마가 다른 파트에 규칙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방 반복되어 가며, 고도의 대립기법으로 구성되는 악곡. 대개 반주 없는 주제가 먼저 등장하여 곧이어 다른 성부로 이어진다.

하이라이트로 꼽히며 대표곡으로는 <세상만사 우스갯소리(Tutto nel mondo è Burla)>, <내 입술로 황홀한 노래가 날아가네(Dal labbro il canto estasiato vola)> 등이 있다.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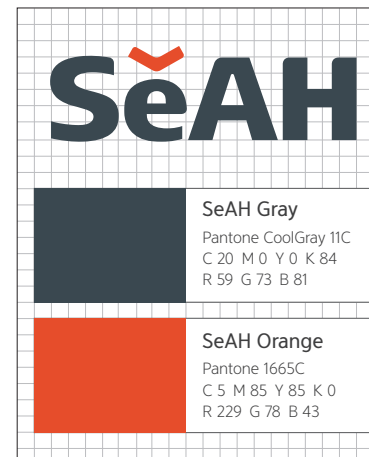
15세기 초 영국의 윈저 지방, 뚱뚱하고 성질 고약한 귀족인 팔스타프 경은 부잣집 아낙인 포드(Ford) 부인과 페이지(Page) 부인을 꺾어보겠노라며 이들에게 연애편지를 쓴다. 똑같은 편지를 받은 두 아낙은 자신들을 알리고 수작인 벌인 팔스타프를 골탕먹이기로 하고, 이들의 남편을 비롯해 퀴클리 부인, 그리고 팔스타프에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이 계획에 동참한다. 이들이 꾸민 연극과 요정 소동에 속아 놀라고 당황한 팔스타프는 눈물을 흘리며 자비를 구하고, 자신이 조롱 당한 것을 깨달은 팔스타프는 호탕하게 웃으며 '세상만사는 희극이며 남자들은 타고난 어릿광대'라고 노래한다.

신뢰와 열정의 상징 CIE 깃든 세아의 기상과 신념

기업의 브랜딩은 이제 회사를 알리는 단순한 도구의 개념을 넘어 고객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적 자산으로 진화해왔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기업의 비전과 이념 등을 함축하고 있으며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CIE 대해 알아보고, 세아의 CIE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자사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인 일환으로 CI(Corporate Identity)를 개발하고 이를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고 있다. 표준적 디자인 체계를 통해 기업의 비전과 이념 등을 함축하고 있는 CIE에 대해 알아보고, 세아의 CIE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

기업은 브랜드를 통해 고객과의 약속을 정의하고,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나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양한 접점에서 약속을 입증하는 기업의 브랜드를 경험한 고객들은 신뢰로 보답하게 된다. 고객은 단순히 제품을 산다기 보다 파트너를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브랜드는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이자 비즈니스 자산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일일이 말로 전달하기 어려운 브랜드의 세계관과 가치를 컬러나 비주얼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 바로 CIE이다. CIE의 개념이 미국에서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회사명을



디자인적으로 표현해 시각적 환기를 높이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런가 하면 이후 일본에서는 CI의 시각 요소인 VI(Visual Identity)를 기본으로 하면서 조직내부 구성원의 의식혁신을 촉구하는 MI(Mind Identity),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BI(Behavior Identity)가 추가되어 진일보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제 CIE는 디자인 일반도에서 벗어나 기업문화, 경영혁신 등 수많은 분야와 접목되면서 보다 종합적 색채를 띠어가고 있다. 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컨셉화하고 각 부문에서 유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세아 브랜드의 컬러는 '신뢰와 열정'의 브랜드 속성을 표현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먼저 세아 그레이 색상은 주력 사업인 철강제조업의 전문성과 전통성, 자신감을 의미하며, 신뢰에 바탕을 둔 기업의 포용력을 상징한다. 세아의 브랜드 언어 e의 상단에 위치한 라이징 커브는 부메랑을 연상시키는 모양의 패턴 요소로, 옅은 색상은 탄탄한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핵심 경쟁력을 창출해 나가는 구성원들의 열정을 표현한다. 세아 CIE의 심볼마크 역시 탄탄한 사업 기반을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세아의 위상과 구성원들의 기상을 이야기한다.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을 유지하는 형태는 다양한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세아인의 자세를 나타낸다.

SeAH News

세아뉴스

세아제강



순천공장 봉사활동 시행

세아제강 순천공장은 지난 3월 14일, 노인 요양시설 ‘예광마을’을 방문해 봄맞이 대청소, LED 전구 신규 설치, 어르신들과의 담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2015년 첫 이웃사랑 실천이자 11번째 예광마을 방문으로, 20여 명의 순천공장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며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사랑의 모금함으로 거둔 30만 원 등을 예광마을 발전 기금으로 성금했다.

세아특수강



2015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 동참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임직원은 지난 3월 25일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포항시 ‘2015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13년 3월 대형 산불로 소실된 운흥사 일원을 희망의 숲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내 손으로 푸른 산림을 복구시킨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포항시가 마련한 행사다. 세아특수강 임직원들은 포항시민들과 함께 직접 나무심기에 동참하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세아베스틸



지방세정 발전 유공 기업 선정

세아베스틸은 3월 2일 제49회 납세자의날 행사에서 지방세정 발전 유공기업으로 선정되어 한국지엠(주) 군산공장, 타타대우상용차(주), 군산레저산업(주)와 함께 군산시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세아베스틸을 비롯해 4개사가 납부한 지방세는 100여 억원으로 군산시 지방세입의 약 15% 수준에 달하며,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아 ESAB



2015 사무기술직 워크숍 개최

세아 ESAB은 3월 20일과 21일 창원 폴리텍대학 폴리테크노센터에서 2015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무기술직 워크숍을 개최했다. 80여 명의 참석자들은 2015년 경영목표와 향후 3개년의 도전목표가 담긴 대표이사의 PD(Policy Deployment)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부문별 목표(KPI)와 개선계획(Kaizen)을 수립했다.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 유덕상 대표이사는 “세아 ESAB의 핵심가치는 인재, 기술력 그리고 Kaizen”이라며 CBS의 수행의지를 강조했다.



외부강사 초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세아베스틸은 2월 23일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 및 사업장 무재해 운동 활성화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군산공장 연구동 3층 세미나실에서 실시했다.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박연홍 이사장을 초청하여 사고사례, 무재해 운동 추진기법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인지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을 교육과 실습을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향후 무재해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아메탈



창립 21주년 기념식 행사

세아메탈은 창립 21주년을 맞아 3월 20일 창원 본사와 원주공장에서 각각 기념식 행사를 거행했다. 박의숙 회장은 창립기념사에서 “어려운 경제 환경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힘차게 도약하는 세아메탈이 될 수 있도록 혁신을 이루고 열정적인 자세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자.”라고 직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와 모범사원들의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People News

사우동정

세아제강

입사

임민지 본사 대리점팀
장빅토르 본사 수출3팀
장기태 포항 업무지원팀
김민건 포항 물류팀
박종오 포항 업무지원팀
김현지 포항 안전환경팀
천경희 판재 품질경영팀

결혼

장빅토르 본사 수출3팀
노경순 본사 STS내수팀
이 찬 포항 설비기술팀
김성준 포항 생산3팀
최성욱 포항 신제품개발팀

출산

박준민 본사 대리점팀
이재준 본사 구매팀
김종룡 본사 실수요팀
이성훈 본사 대리점팀
김 동 포항 설비기술팀
김도완 포항 설비기술팀
차경두 순천 업무지원팀
장호영 순천 업무지원팀
황훈호 순천 생산팀
이영재 순천 설비팀
윤광식 판재 생산팀
김희원 광주영업소

조의

안병석 포항 생산1팀(부친)
한용섭 창원 부공장장(장인)
신상우 창원 품질경영팀(장모)

세아베스틸

결혼

이용석 구매2팀

조의

김원태 자동차부품팀(부친)
박길정 주조팀(부친)
이동빈 제강팀(모친)
임신욱 대형압연팀(장모)

세아특수강

입사

김한준 해외사업팀
권경민 선재영업팀

출산

정태경 포항 품질보증실

조의

김효섭 포항 생산팀(형제)
하상용 포항 생산팀(부친)
김명엽 포스세아선재
남통공장(모친)

세아 FS

입사

김홍찬 서울 영업마케팅
황애리 서울 경영관리팀
신경철 서울 생산관리팀
이상태 평택 연구2팀
정우중 평택 가전영업팀
김민석 평택 생산팀
이혜영 평택 업무지원팀
전병석 평택 연구2팀
안호진 평택 가전영업팀

결혼

최만규 평택 연구2팀

출산

신석호 평택 연구2팀

조의

송진원 평택 외주관리팀(부친)
이진호 광주 생산팀(모친)

세아 ESAB

결혼

김윤곤 생산팀

출산

임희대 제품개발팀

조의

이인재 CFO(장모)
김영희 생산팀(시모)

세아메탈

조의

심계열 생산혁신팀(모친)

세아엔지니어링

입사

김선휘 기술팀
이상진 경영지원팀

세아 M&S

입사

김재홍 경영지원팀

세아 L&S

입사

이주연 포항운영팀
이소연 대경기획팀
류지선 강관영업팀
유나경 판재영업2팀
김원수 창원영업소

출산

강태원 판재영업1팀
정현수 부산영업팀
이효인 국제물류팀

조의

김현철 부산영업팀(부친)

독자참여

Reader's Letters

세아가족 여러분이 지난 호 <세아가족>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새해맞이 신님과 각오를 보니 세아의 뜨거운 열정과 저력을 보는 것 같아 더욱더 세아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세아의 팬으로 남고 싶습니다.

조만영

이번 세아가족의 이야기들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세아그룹의 다양한 활동이 사보 한 권에 다 담겨있어서 유익하네요.

오기쁨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우리 세아가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사보를 통해 알 수가 있네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세아가족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재희

올미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새해 첫 사보를 읽는 기분도 새로웠습니다. '새해를 여는 첫 마음, 초심' 기사를 읽으며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다잡아봤습니다.

강미화

세아라는 이름의 가치와 브랜드가 조화를 이루며 나아갈 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사보를 통해 세아의 궁금한 소식들을 알게 되고 세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연금순

<정정합니다>

지난 호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앞으로 잘못된 표기나 오류 없이 세아의 소식을 바르게 전하는 <세아가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단락 19번째 줄

<변경 전> “올 한 해 여러 가지 도전과제들이 ~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변경 후>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있지만 열정을 갖고 난관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Quiz

세아가족 3 + 4호를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Q1 제1회 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의 부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① 오페라 스타 ② 오페라 버킷 ③ 오페라 하우스 ④ 오페라 시어터

Q2 세아베스틸의 인수로 새롭게 세아가족이 된 포스코특수강의 새로운 사명은?

① 세아창원특수강 ② 세아창녕특수강
③ 세아-포스트특수강 ④ 베스틸포스 특수강

Q3 '화려하다(Glamorous)'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은?

① 이지캠핑 ② 럭셔리캠핑 ③ 카라반캠핑 ④ 글램핑

지난 호 퀴즈 정답자 *****

조만영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오기쁨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조경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이재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강미화 경상남도 창원시 웅남동
연금순 경기도 군포시 오금동

<세아가족> 사보기자

전태원	세아제강 인사운영팀(본사)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이병준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정서현	세아 FS 인사팀(서울)
이현구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박수연	세아 FS 경영관리팀(평택)
김재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판매공장)	이송이	세아 FS 품질경영팀(광주)
강태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강관공장)	장영원	세아 ESAB 경영지원실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순천)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본사)	이건호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
정보람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군산)	이상기	세아 E&T 경영지원팀
류상우	세아특수강 회계파트(서울)	김재홍	세아 M&S 경영지원팀
이형호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김미희	세아 L&S 재경기획팀

사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
 감명 깊게 본 영화나 책 등을 추천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chris.ahn@seah.co.kr / 02-6970-0093

철 든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철에 사랑을 더하면 도시는 얼마나 멋있어질까요?
철에 사랑을 더하면 생활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철강기업 세아,
철에 대한 사랑으로 꼭 찬 사람들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두려움이 만든 경계를 벗어날 때 가능성이 열립니다

위기를 위험이라 구별 짓는 순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사람,
뒤로 숨기보다는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면 된다'라고 소리 내 다짐해 봅시다.

강한 의지와 용기, 그리고 실천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결승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